

북극 중앙해 공해역 어업 협약 지금 어디, 앞으로 어디로



극지법연구회, 2017년 4월 21일

타결을 기대했던 5차 정부 협상

정치적 선언에서 구속력 있는 협정으로; 레이카비크
협약 드디어 나오는가?

북극이사회를 넘어서는 북극해 규범과 새 질서? 그렇
게 쉬우면 재미없지

우리 입장

-구속력 있는 협정 지지; 피하지 않고 새 질서 형성에
참여하겠다, 원초서명국 되겠다

-단계적 접근 지지; 어업금지는 잠정 한시 조치
(interim measure)

-과학연구 선도적 주도적 참여로 위상 제고하고 정보
경쟁에서 뒤지지 않겠다



'선언이면 충분하다' 무대용 기조 1개 연안국 드디어 흑 언제 입장을 바꾸려나

1-3차를 방관적 예의주시 모드로 일관

4차부터 공세적으로, 5차에 더 적극적 입장 개진, 조건
을 내걸기 시작

가장 긴 해안선이 협상 카드 연구소

연안국은 비연안국과 같을 수 없다

자연스럽게 핵심 쟁점을 만들어나가는 입장,

협약수역을 어떻게 정의, 발효 조건을 정한다, 지역수
산기구 결성의 열쇠가 되겠다

정기회의 형태 (매 2년) 과학자조직 결성 명문화
공동연구 프로그램 발굴 요구 명문화
자료 공유 정신 천명과 그 방법 개발까지

단계적 접근 철학 다소 약화
유예조치 직간접 명시

시험 조업, 하지만 원칙 하



서명 10개국에 1년 개방, 기탁국 자원하는 정부 있음

협약 수역 정의; 평범한 공해와 다름을 분명히

발효조건 7개국 기탁, 하지만 즉시 발효 위해 연안 5개국 동의 필요 아니면 일정유예기간 뒤 발효 연안 1개국으로도 일정기간 지연 가능

이후 추가조치 예 지역수산기구 결성 협상
개시 보류 지연시킬수 있음

주요 의사 결정; 가중다수결 3/4 (8개국) 찬성 요구, 그러나 찬성에 연안 3개국 포함 요구, 2년 유예 요구 권리 부여

이후 추가조치 예 지역수산기구 결성 협상 개시 보류
지연시킬수 있음

지역수산기구 설립 등 필요조치 시행을 제한된 수의
특정국들이 지연 보류시킬 수 있는 선례?

원초 서명국 아닌 특정 지리적 위치 국가들에게 특수
지위 부여

원론적 법적 관점과 정책적 판단의 동시 고려가 필요
한 경우

